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등학교 교장·교육학박사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소풍이라고 했다.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리고 수학여행, 요즘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한다. 체험 학습 가는 날이 되면 아이들은 늘 들뜨고 활기가 넘친다.

그런데도, 내년도 체험 학습 계획을 세우는 학년 말 교직원 회의는 다소 긴장감이 흐른다. 결국 한 학기에 한 번 씩 가는 것으로 대부분 결론이 나지만, 늘 흔쾌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자주 가기를 원하고, 학교장도 체험 학습 횟수가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기대하지만, 선생님들 처지에서는 줄이거나 없애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우려하는 이유는 혹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교사가 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기고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꼬집는 표현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제는 단순한 지역 간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도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최저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무려 26.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1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이에 전남도는 학생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 교육 격차 등 국가적 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인재육성교육국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방대학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

기고

이원구

광주 서구 보건소장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거리마다 라일락과 개나리,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생기를 되찾는 이 계절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소를 찾는 많은 이들 중 봄철이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난다.

나무와 풀에서 날리는 미세한 꽃가루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 체계는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의 가려움과 충혈, 심한 경우 만성적인 피로감까지 동반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우리 서구는 푸른 녹지와 공원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해마다 3월부터 5월 사이 꽃가루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가루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꽃가루 비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이들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사 책임 문제로 날아간 수학여행의 꿈

특히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 체험 학습 과정에서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런 부담은 한층 커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2년 5개월 전 일로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테마파크에 초등학교 6학년들이 체험 학습을 갔다.

체험학습장 앞에 도착해서 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렸고, 선생님을 따라 모두 줄지어 안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중 한 명의 학생은 신발 끈 때문에 대열에서 혼자 벗어나게 됐다. 이때 주저를 위해 이동하던 버스에 치이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에 있어,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담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과 더불어, 인솔 교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6개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다시 학교와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선생님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재판부에 탄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로 교사들을 또 다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은 존재의 기로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6월 21일 이후로 체험 학습을 미루거나,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 학습’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추억이 담긴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학교도 생겨나고 실정이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 2학기에도, 교사들은 계속해서 체험 학습을 거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미비해 안전 지도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2심 결과도 지켜보고 마음을 정하겠다는 선생님들도 있다.

사법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마냥 거부로 일관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요즘 마음이 참 무겁다.

체험 학습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소멸 위기, 해답은 교육에 있다

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5년간 특별교부금 117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 신에너지·마이스관광, K첨단산업 등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남도 인재육성 고숙도료’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2028년까지 매년 도비 100억 원을 투입해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인재, 평생인재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통해 연간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인 자립도 함께 지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국제교류, 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사회진입도 돕는다.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을 도입해 전국적인 제도와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RISE’, ‘순천대·목포대 글로벌대학 육성’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모형을 통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가 필요하다.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평균(3.3%)에 미치지 못하며, 고등학생 1인당 지출도 OECD 최하위 수준인 0.67%에 불과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아 학교 신·증설과 교사 확충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고등교육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대학의 재정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는 2015년 75만 명에서 2024년 61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 30조 원에서 2024년 6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휴학 규제 완화, 재입학 및 장기휴학 활성화,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처럼 교육은 위기를 돌파하고 변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답이다. 지방소멸 위기 해답 또한 교육에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교육을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꽃이 피면 알레르기도 피어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외출 전에는 기상청이나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꽃가루 농도 예보를 확인해야 하며, 농도가 매우 높다고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해 꽃가루의 흡입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외출 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걸옷을 충분히 털고, 손과 얼굴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샤워를 통해 몸에 남은 꽃가루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실내 환경 역시 방심할 수 없다. 창문은 꽃가루 농도가 낮은 저녁이나 비 온 직후에 잠시 열어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침구류는 집 안으로 유입된 꽃가루를 제거하기 위해 60도 이상의 온수로 주 1~2회 세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항히스타민제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예방접종 이력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고열과 발진이 동반되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영유아와 고령자에게 심각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역시 봄철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바이러스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기본적인 개인 위생이 RSV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동에게 흔한 수두와 이하선염은 전염성이 높고 학교나 학원 등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등교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봄은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 계절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한 봄을 보낼 수 있다. 외출 전 꽃가루 예보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며, 예방접종 이력을 재점검하는 일상의 실천이야말로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 광주 서구보건소는 지역 주민 모두가 알레르기과 감염병의 위험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봄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즐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지 바란다.

OPINION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사설

갈길 먼 의대 정상화 해결책 마련되길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발, 동맹휴학에 나섰던 광주 지역 의대생들이 복학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상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전남대 의대는 지난 7일부터 모든 수업을 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대면 강의 참여율은 과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과목이 전체 수강생의 10%정도만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본과 3·4학년 대상 실습수업에 수강정원 115명 중 3학년은 99명, 4학년은 100명이 수강 신청은 했지만 실제 수업에 출석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이 때문에 올해 당장 의사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의 경우 응시 요건인 실습 과목 52시간 이상을 이수할 시간이 빠듯하다. 이번 주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과 1~2학년도 수업 시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급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기준일은 21일로 다가오고 있다.

조선대 의대도 역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현재까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을 고려하지 않고 학년 말에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미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서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조치가 시작되고 있는 등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각 학교마다 2024학번과 2025학번, 2026학번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사태가 벌어지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실습 인프라 부족, 교수진 과부하, 병원 현장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징계보다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우선시 하며 독려하고 있지만 수업거부 사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며 최소한의 의대 정상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책임있는 행동도 필요하다.

결혼 10쌍중 1쌍 ‘다문화혼인’이라는데…

광주·전남지역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을 보면 지역 다문화 가구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전체 혼인 건수 5248건 중 9.1%인 475건이 다문화 혼인이다. 이는 전년도(355건)와 비교해 볼 때 33.8%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도 전체 혼인 건수 6241건 중 12.5%인 782건이나 됐고 1년 전(568건)보다 19.6% 늘었다.

다문화 가구수도 5년새 크게 증가했다. 광주는 2019년 7347가구에서 2023년 8700가구로 18.4% (1353가구), 전남은 2019년 1만4060가구에 서 2023년 1만6325가구로 16% (2256가구) 각각 증가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지방 인구가 고령화되고 정부의 다문화 가구 지원책 확대 등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다문화 가구의 비중도 높아졌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전체 가구의 2.2% (17만1792가구 중 3750가구)나 됐고 북구 (19만2754가구 중 2341가구·1.2%), 남구 (9만1218가구 중 959가구·1.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영암군 (2만7552가구 중 1053가구)이 3.8%로 가장 높았고 장성군 (1만8232가구 중 532가구·2.9%), 진도군 (1만4263가구 중 387가구·2.7%)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다문화 이혼건수 또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광주의 다문화 이혼건수는 206건으로 전년(144건)보다 43.1%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남도 306건으로 전년 301건 보다 1.7% 증가했다.

이처럼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장 환경으로 인한 가치관 차이가 주된 원인이지만 결혼을 한국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사례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차별은 여전하다. 이들 가정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게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